

제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2)

말씀: 마태복음 5장 1-12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바라고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 1)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3절)
- 2) 두 번째 복은 애 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4절)
- 3) 세 번째 복은 _____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5절)
- 4) 네 번째 복은 _____에 주리고 _____ 자는 배부름을 얻습니다. (6절)
- 5) 다섯 번째 복은 _____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7절)

지난주일 헌금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 (II Cor.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 오후 2시 2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마태복음 5장 1-12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5: 1-12 신약 5 페이지 President
- 말 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2) 김성민 목사
Message 8 Blessings from God
- 찬 양 455(507)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 다 같 이
Praise We Shall be Like Him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과 헌신의 기도 그 사랑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His Love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Jason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교회 개척 축하)

지난 주 여기저기에서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교회 개척을 축하하는 이야기였다. 페이스북(Facebook)에 오랜만에 사진을 올렸더니 반갑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 분의 장로님께서 개척 소식을 듣고 교회 장소를 묻는 바람에 페이스북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온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아직 축하 받을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에 일일이 답하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 중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나가셔서 신학교를 꿈꾸며 사역을 하시는 한 분의 목사님으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어려운 길 새로 떠나시는데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어려운 길인가? 그리고 새로운 길인가? 생각해 보았다. 맞는 말씀이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장소가 그렇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길인 이유는 우리 교회가 바로 새로운 교회 아닌가? 그저 이름을 새로이 해서 시작한다는 의미보다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목사님으로부터의 축하 메시지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 후 며칠 동안 60세에 시카고에서 개척하시는 목사님, 50세 중반에 선교사로 새로 헌신하신 목사님, 50세 초반에 영국으로 가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는 친구 목사님... 나 혼자만이 아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이 헌신하며 순종해 나가는 소식들을 아울러 듣게 되었다. 얼마나 힘이 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소식이었는지 모른다.

그 때 개척하는 교회에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생각났다. 바로 이 컬럼을 읽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 교회를 개척을 아무나 하나? 목회자의 헌신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목사의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하지만 그 보다 더 힘 있고 중요한 것은 함께 세워 나가는 성도들의 헌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 내가 받은 축하는 나에게만 향한 축하가 아니라 오레곤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을 만한 축하인 것이다.

얼마나 행복하고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나의 짧은 인생에 1권 1호의 주보를 받으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다. 그 이유를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더욱 깊숙이 알게 될 것이다. 감격하며 더욱 행복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준비 되어 있지 않지만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릴 교회를 생각하면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더욱 깊이 파고 들 때마다 넘치는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이다.

성경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을 통하여 순종할 때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벌써 그 증거들이 보인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충성을 다할 뿐이다. 그 때에 그 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교회가 개척되는 일은 축하 드릴만한 일이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2.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이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도록
- 2)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임 수 있도록
- 5)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3. 예배 장소 관리

교회에 물품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그 자리에 이전과 같이 돌려놓아야 합니다. 깨끗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교회 모임

11월2째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생명의 삶

이번 주 묵상 성경 구절

- 월요일: 골로새서 1장 1-8절
화요일: 골로새서 1장 9-23절
수요일: 골로새서 1장 24-29절
목요일: 골로새서 2장 1-5절
금요일: 골로새서 2장 6-10절
토요일: 골로새서 2장 11-19절

6. 담임목사 동정

담임 목사 출타: 10월 21-11월 2일 (프랑스 백남일 선교사님 방문 계획)

다음 주일은 신종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7. 헌금 안내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이 자원하며 헌금을 드리시고 Check에 제목을 [New Church of Oregon](#)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